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심윤경 소설가

“한낮에 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점심시간이길래, 뭘 놓고 갔나 했어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에겐 이런 종류의 일화들이 아주 많았는데, 아무리 들어도 새로이 귀를 기울이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엄마, 하더니 우는 거예요. 난 너무 놀랐어요. 왜? 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니까, 혹시 피싱인가 하고 의심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어설픈 구석어 없는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 분명히 ○○이 목소리였어요.”  
결국 그것은 흔하디흔한 피싱 이야기였다. 그녀는 놀랐지만 끝까지 주의력을 잃지 않았고, 아이가 학교에 안전하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좋은 마무리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이전과 다른 한 가지 디테일이 더해져 우리를 좀 더 무섭게 했다. 듣는 이가 이미 피싱을 접착하고 유심히 듣는데도 도무지 의심할 수 없이 똑같은 ‘아이의 말투와 목소리’였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버전의 많은 ‘철렁한 보이스 피싱 이야기’들을 들어왔지만, 듣는 사람이 너무 놀라

일상의 붕괴

서 지레 정신줄을 놓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이것이 자기 입을 집착 가능한 힌트들이 있었다. 협박하는 사람이 특정 지역의 말투를 쓰거나 주변 잡음이 몹시 심할 때가 많았고, 무엇보다도 목소리가 숨길 수 없이 달랐다. 울거나 비명을 지르는 식으로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여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숨기려 애쓰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힌트를 찾을 수 없었다. 아이가 울음이 섞이기는 했어도 똑박똑박 말했고 그 목소리는 엄마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들어도 분명 내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전에 들었던 ‘목소리’에 관한 또 다른 일화가 떠올랐다.  
“나 김정은한테서 축하 전화 받았어요. 들어 보실래요?”  
한 지인이 자랑스럽게 넘겨준 전화기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그의 유튜브 채널 개입을 인민의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한다며 유튜브 채널의 번역과 발전을 기원하고 있었다. 의심할 길 없이 절절한 총비서의 목소리였다. 물론 동해에 미사일이 오가는 판에 그가 한국 유튜브에게 축하 전화를 할 리 없다. 인공지능(AI)의 작품이라고 했다. AI에게 특정인의 목소리를 오래 들려주면 그의 말투와 목소리를 똑같이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사례를 보면 피싱단은 이제 AI를 통한 음성 재현 기술을 범죄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내 손안의 발칙한 물건은 내 개인적인 통화를 귀 기울여 듣고, 녹음하고, 그 정보를 유출해 AI가 내 목소리와 말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도록 도와다는 뜻이 아

닌가? 우리는 피싱보다도 휴대폰에게 더욱 분노했다.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새어나가 범죄 집단의 손에 들어간 것인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에는 얼마 만큼의 책임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무능일까 악의일까?  
공원에서 과자 부스거기를 주워먹던 새 때가 무리지어 인간을 공격하고, 아이를 돌보러 온 순한 얼굴의 보모가 내 가족을 살해하려 한다는 식의 뻔한 공포 서사에 우리가 질리지 않고 몸서리를 치는 이유는 평범한 외양을 가진 어떤 사학원이 우리의 일상에 집요하게 스며들어 마침내 균열을 내는 순간을 정교하게 치밀하게 묘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리는 소소한 일상의 배신, 일상의 붕괴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진정하고도 유일한 공포다. 불평 많은 배우자, 속없는 자식들, 직원 복지가 형편없는 우리의 직장은 사실 우리가 가진 전부다. 그 보잘 것 없는 것들에 실금이라도 가는 순간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둥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그것이 손상된 이후 우리 인생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음을 절감한다.  
소중한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다치고 생명을 잃은 그 사고 이후 마음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 사회가 무언가 나은 방법들을 배우길 바랄 뿐이다. 피싱 전화 한 통으로도 쉽사리 흔들리는 우리 연약한 일상의 안위를 생각할 때 희생자와 부상자, 유족과 가족들의 고통은 가능조차 되지 않는다. 온 마음을 다한 위로와 기도만을 드릴 수 있을 뿐이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하나 아렌트는 전범자이자 600만 유대인 학살의 실무 총책임자인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을 보고 느낀 점을 서술한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의 저자다. 아이히만은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법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어느 누구도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아이히만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않았으며 그저 복종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인간의 모습이 어찌 이토록 참혹하고 악마적인지 모르겠다. 거대 담론을 논하고 싶지 않다. 그저 왜 인간의 사람의 생명을 두고 이렇게까지 잔인한지 궁금할 뿐이다. 자신은 명령에 복종했고, 또 법을 지켰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인지를 오히려 되묻는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모르던 누구나 아이히만과 같은 악행을 저지르는 선봉장의 역할을 할 수 있

악의 평범성

는 것은 아닐까? 하나 아렌트는 결국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 아이히만과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최근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원로라고 할 수 있는 한 정치인의 말이 떠오른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공사·경중·선후·완급의 네 가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 아는 것처럼, 공사(公私)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공적 영역으로서 모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경중(輕重)은 잘 가려야 한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선후(先後)도 경중과 함께 잘 가려야 하는데, 무엇을 먼저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림과 뼈대의 완급(緩急) 조절도 필요하다.  
이 네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무거운 짐만 지을 뿐이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니, 모든 일이 비밀스럽고 무질서해 보일 뿐이다. 쉽게 말해 내 것과 우리의 것을 구분하지 못해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게 될 소지가 크다. 경중도 그렇다. 당연히 공사 구분이 안되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사적인 영역에서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할 뿐이다. 선후도 마찬가지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면 먼저 할 것이고, 이익이 없다면 먼저

해야 할 일도 나중에 할 것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여러적음인가? 만일에 생명을 다루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중과 선후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톨릭 신앙 안에서 영적인 식별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영적인 식별은 곧 모든 것을 하느님께 두는 것이고, 또 하느님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투신했을 때 가능하다. 쉽게 말해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어야 가능한 것이 영적인 식별의 첫 단계라고 본다. 영적인 식별이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랬다. 하느님이 신 분이 하느님과 같음을 원하지 않으시고, 죄를 제외하고 인간과 똑같이 되신 것이다.  
여기에서 영적인 식별이 가능한 것이다. 자신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역설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기준인 공사·경중·선후·완급을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행동 결과에 대해 사유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철저한 탐욕의 노예 근성이라고 본다. 잘못된 정치나 학살에 대한 이유를 법질서의 유무로 따졌을 때 그것은 모두 거짓이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 잘못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탐욕이 승리하여, 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탐욕을 만족시키는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

社說

전남 올 첫 조류독감...초기에 강력 대처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전남 지역 축산 농가에서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어제 장흥군 육용 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AI H5N1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남에는 AI 항원이 나온 강진만 생태공원의 고니 폐사체를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가끔 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이다. 이에 앞서 순천만 흑두루미 폐사체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들은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시기에 조류 독감이 확진되자 방역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닭과 오리 등 57만 4000마리를 살처분하고, 해당 농장 출입 통제와 주변 도로 소독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오리 사육지이고 금호호·영암

호 등 지역 내에 철새 도래지가 적지 않다 는 점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AI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한 만큼 선제적 방역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겨울 철새를 매개로 전염되는 AI는 한번 발병하면 전파 속도가 빠른 탓에 완벽한 예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AI는 바이러스 유형이 144개로 구역의 입급 개보다 훨씬 다양해 강력한 초기 방역이 필요하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농가나 국민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농가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외부 물품 반입 금지 등 기초적인 방역부터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도 가급적 농가 방문이나 발생지 인근에 대한 차량 이동을 자제하는 등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빈틈없는 초동 방역만이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다.

지방 재정 옥죄는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대규모 적자를 안고 달리고 있다. 요즘은 수년째 동결 중인데 고령 인구 급증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자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철도 경영 기관의 작년 당기 손실은 1조 6808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약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4851억 원에 달한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연평균 당기 손실은 371억 원 규모다. 이중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79억 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향후 무임승차 비율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1984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철도 경영 기관의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적자는 총 24조 원에 이른다. 누적된 손실은

이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철도 운영을 지난 2015년 인상한 이후 여타것 동결하면서 수송 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30%에 그치고 있다. 경영상 어려움이 그 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다. 노후 시설의 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 확보도 시급하다. 협의회가 그제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조속한 국비 지원을 또다시 요청하고 나선 까닭이다.  
국가 차원에서 도입된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는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제도이다. 그럼에도 지방 정부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임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받는 것처럼 지자체에도 동등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하철 운영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손흥민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역대 월드컵을 빛낸 대표 7번’에 이름을 올렸다. 잉글랜드의 베컴·포르투갈의 호날두·이탈리아의 델 피에로·스페인의 비야 등 전설이 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축구 대표팀 ‘에이스’의 등번호는 왜 10번이 아니고 7번일까?  
축구 선수들에게 등번호는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번호를 보면 그가 어떤 선수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다. 일반적으로 1번은 골키퍼, 2~5번은 수비수, 6~8번은 미드필더, 9~11번은 공격수에 배정된다.  
이 중 10번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1958년부터. 17세 브라질의 공격수 펠레가 10번을 달고 출전한 뒤 3회 연속 월드컵 우승을 이끌자 ‘10’은 축구에서 ‘완전한 숫자’이자 팀 ‘에이스’의 상징이 됐다.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프랑스의 지단·독일의 마테우·브라질의 호나우두 등 슈퍼스타들이 모두 10번을 달고 뛰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국가의 에이스인 아르헨티나의 메시·브라질의 네이마르·프랑스의 음바페 역시

등번호가 10이다.  
그러나 한국 대표 팀에서는 지금까지 10번다운 10번을 찾기가 어려웠다. 영광스러운 번호인 만큼 부담도 많아 선수들이 기피해서다.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수비수 이영표가 10번을 달아 상대 팀 선수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미드필더 이재성이 10번을 달고 출전한다. 광주대 출신 조규성은 주전 공격수를 상징하는 9번, 막내 이강인은 18번을 받았다.  
한국 대표 팀에서는 10번 대신 7번이 에이스의 역할을 했다. 7번은 잉글랜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 맨유에서는 베스트·칸토나·베컴·호날두로 이어진 7번이 항상 팀의 중심이었다. 박지성은 맨유에서 13번이었지만 대표팀의 에이스가 되자 7번을 달았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김보경으로 이어졌다가 2018 러시아 월드컵부터 손흥민의 번호가 됐다. 손흥민은 ‘롤모델’인 호날두의 플레이를 닮고 싶어해 소속 팀 토트넘에서도 7번을 달고 뛴다.  
/유재만 편집담당1국장 jkyou@

선수와 등번호

기 고



박경동 광주문화재단 예술인보듬·소통센터 창작지원팀장

2020년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 수는 7만 91명으로 광주 인구의 4.8%를 차지한다. 2013년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다.  
우리 지역 장애 예술인이 몇 명인지, 생활 실태는 어떠한지, 정책 수요는 무엇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점점 나아가고 있다. 지난 6월 광주문화재단은 장애예술인창작센터 ‘보듬’을 개소했고, 레지던스 입주 작가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 음악·연극·문학 분야 장애인을 모집해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어울림의 장이자 결과 공유회인 ‘예술날개 페스티벌’(12월 2일까지)을 시작했다. 우리는 고난과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예술가를 알고 있다. 청각 장애를 딛고 불후의 명작을 작곡한 베토벤,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지만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장애인의 예술활동 적극 보듬어야

프리다 칼로, 시각 장애인이지만 천상의 목소리로 전세계를 감동시킨 안드레아 보첼리를 우리는 ‘위대한 예술가’라 부른다.  
예술날개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며 필자는 우리 지역의 위대한 예술가들을 가까이서 보고 있다. 지적·지체·시각 장애인 교육생 17명이 12주간 약기 연주 교육을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준비했다. 악기를 처음 접해 본 사람이 태반이었고, 음을 맞춰 가는 과정이 더딜 수밖에 없음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주를 들려주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보며 예술이 주는 진한 감동을 느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두 시간 전부터 나와 연기 연습에 몰두하고, 오로지 글로써 세상과 소통하기에 장애라는 제약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가의 작품을 만나며 예술의 너른 품 안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함을 느꼈다.  
그동안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주요 의제는 기능 손상에 대한 치료적 의미와 예술을 통한 사회 적응력 강화 등으로 제한되어 문화예술 활동의 참관자 혹은 문화복지 수혜 대상자로 여기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을 통해 만난 예술가들은 단순 향유자를 넘어 문화예술을 통해 자기 존재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창작자였으며 자신의 삶과 역경을 예술을 통해 고양시키고 만족감을 높이며 주변인들에게 긍정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장애 예술

인 축제 예술날개 페스티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긍정의 기운을 함께 느끼길 희망하는 이유다.  
사실 문화예술 분야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취약성이 명확히 드러났다. 창작 과정에서 집단 협업과 단체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외 교류 행사가 많고 밀폐된 장소에 최대 많은 관객을 동원해야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은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무너진 예술가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마켓 및 페어 등 유통 플랫폼을 확대해 실질적인 수입 구조를 확장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 활동을 장려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확대해 예술가가 설 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나 사회가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가난한 예술인을 구제한다는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자존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고 창작 동기를 북돋는 방식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 지역에 40년간 창작 활동을 해 온 놀이패 신명과 같은 단체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많은 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성장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무너진 예술가의 일상이 회복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함께해 나갔으면 한다. 미력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닐까 싶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